



제2회 한라일보배 전도 태권도 품새대회가 8일 제주북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휴머노이드 로봇(사진 오른쪽 위)의 품새경기와 버추얼태권도(오른쪽) 시범경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강희만기자

제2회 한라일보배 전도 태권도 품새대회 성황

품새 고수 1000여명 출전 “내가 최고다”

한라태권도5관 개인전 35명 우승자 배출 ‘종합 2연패’
휴머노이드 로봇 ‘화제’… 버추얼태권도 시범경기 ‘눈길’

한라태권도5관이 지난 8일 제주북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한라일보배 전도 태권도 품새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제주 대표신문’ (주)한라일보사가 주최하고 제주도태권도협회(회장 직무대행 강동균)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태권체조부분이 추가되는 등 경쟁부분이 확대되면서 참가단체가 10개 팀이 늘어 1000여명이 정상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

경기는 초·중·고·일반부 개인전과 3인조 단체전으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전 초등부는 학년별로 나눠 치러졌고 단체전 초등부도 저학년부와 고학년부, 중·고등부로 구분해 우승자를 가렸다.

각 조별 우승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장 등이 수여됐고 개인전 1위를 가장 많이 기록한 팀에 대한 종합 시상도 이루어졌다.

종합우승은 개인전에서 35명의 우승자를 배출한 한라태권도5관이 지난해에 이어 2연패했고, 2위는 사자왕태권도(개인전 1위 16명), 3위는 한라태권도2관(개인전 1위 13명)이 차지했다.

첫 신설된 태권체조는 1조 한라태권도7관(박예진, 김유민, 이영은, 권이완, 김태은, 김지성, 이서경, 김강우, 송예인), 2조 오즈태권도2관(김재원, 차예성, 고민기, 이형석, 안지현, 김수현, 이한아, 현지호, 이울, 신병국)이 정상에 올랐다.

단체전 고등부는 김현민·당찬

미·김하은(한라태권도5관), 중등부는 서연수·조현우·한상현(한라태권도5관 A), 초등 저학년부는 1조 홍승연·강형욱·김해담(한라태권도5관 A), 2조 이유주·이지아·박채아(한라태권도5관 B), 초등 고학년부는 1조 이다민·함민서·김수빈(한라태권도7관), 2조 김근혁·정서영·송연정(동광태권스쿨 A), 3조 한시연·김지환·김소민(한라태권도5관 A), 4조 이시안·김시우·정원결(한라태권도5관 B), 5조 현지아·허은별·고준희(리더태권스쿨)이 금메달을 가져갔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개회식에서 한라일보 김한욱 사장은 “한라일보 품새대회가 태권도인이 함께 기량을 겨루고 화합하는 뜻깊은 무대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태권도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체육회 신진성 회장은 축

사를 통해 “제주 태권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태권도인이 하나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한라일보에 감사하다”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개회식에 앞서 펼쳐진 식전공연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태권 품새를 선보여 참가자와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 대한버추얼스포츠협회 후원으로 펼쳐진 버추얼태권도 시범경기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26아이지·나고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버추얼태권도는 태권도 기술과 최첨단 가상현실(VR) 기술을 결합한 종목이다.

이와함께 이번 대회부터 신설된 태권체조 경연에서는 참가팀들이 다양한 태권무와 기술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위령석기자 yswi1968@ihalla.com

우주항공청,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

제주 vs 전남광주특별시 ‘맞대결’

오는 10월 최종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도전장을 내 오는 10월 선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한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제주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총 2개 지자체가 응모했다고 밝혔다.

제2우주센터는 위성 발사 수요 증가와 재사용발사체 운용 확대에 대응해 국가 우주수송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발사시설·재사용 착륙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건립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응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립지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평가대상을 결정 후 발사운용성, 발사인프라 구축환경, 입지·사회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10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항공우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공모 참여 가능성은 불투명했다. 위성군 제주지사는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제2우주센터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해 국가 핵심 우주수송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적의 건립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인공 지능 기반 제주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도, 26억 투입 366㎢ 대상
“각종 인·허가와 재난안전 자율주행 등 기초자료 활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지형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도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2027년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을 통해 도내 366.75㎢를 대상으로 고정밀 수치지형도와 전자도로대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26억원이 투입되며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총 1467도엽(지도 단위)을 제작한다. 구축된 자료는 건설공사와 도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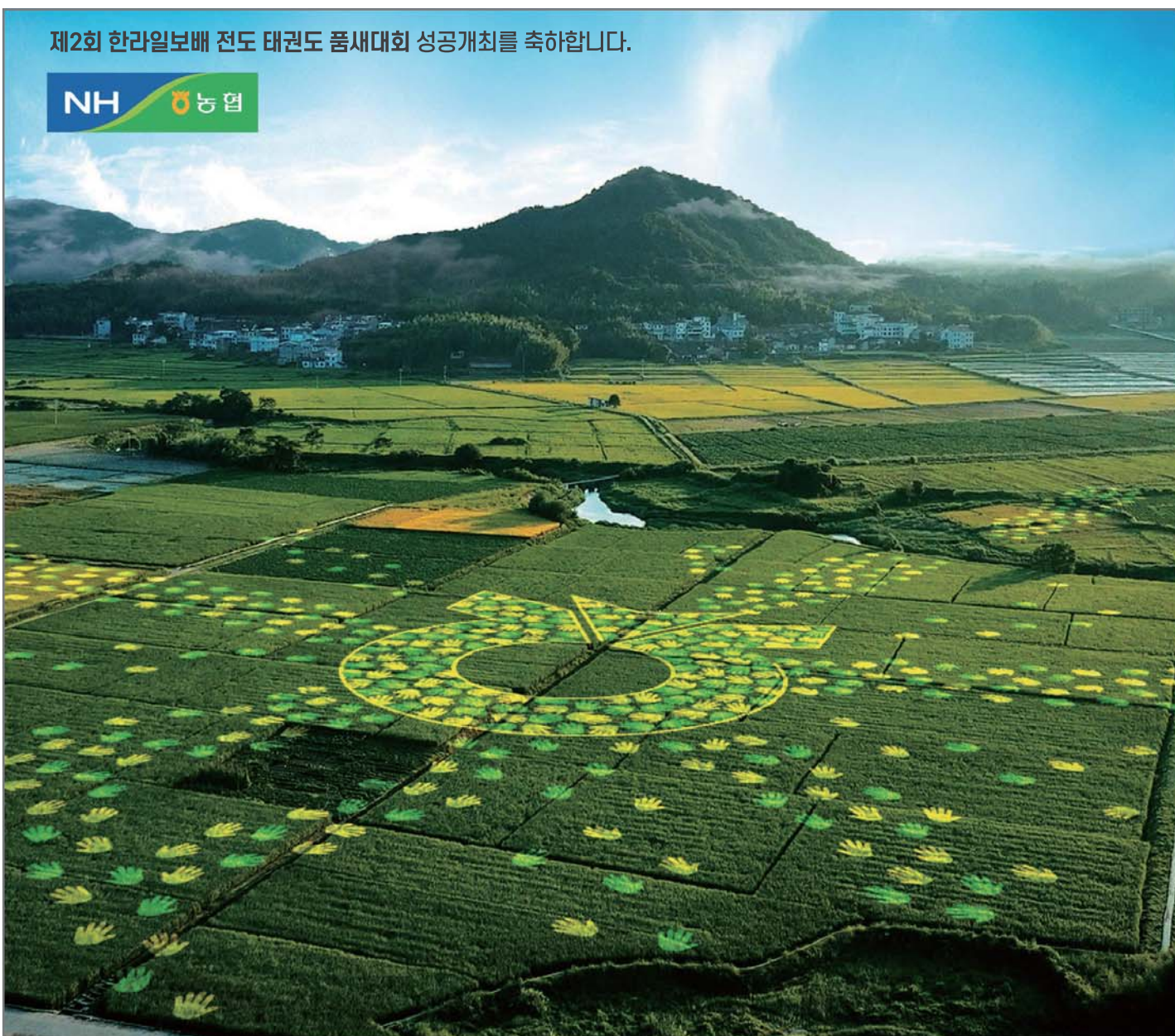
발, 각종 인허가, 재난안전, 자율주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도 제작을 위해서 기존 수치지형도와 행정자료, 항공사진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지형과 시설물의 변화를 찾아내는 ‘공간정보 인공지능(GeoAI) 변화탐지 기술’을 적용한다. 이 기술은 건축물의 신축·철거와 도로 개설 등 기존 지도와 달라진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 지도 갱신이 필요한 지역을 가려낸다. 이를 통해 넓은 지역의 변화를 빠르게 확인하고 지도 제작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제주도는 2026년 재생에너지 분야 3차원 공간정보 구축에 이어 2027년에는 변영로와 남조로를 시작으로 도내 지방도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서귀포시 하효마을회, 무너진 4·3성 복원… 4면



“우리 곁에 농협이 있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함께 일어서고
혼자는 어렵지만 같이 헤쳐나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곁을 지켜주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손길

농협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농협



재난재해 임직원 일손동기 1만 7천명
무이자 제해자금 8천억 원 지원(2025년)



범농협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98,370건, 786,442시간(2025년)



고유가 물가안정을 위한 유류비 인하 3백억 원(2026년)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기후 질병 확산 차단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운영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